

올해 하반기 수출 4.3% 하락...반도체 12.8% 감소 영향

조선·이차전지 등 제외 주력 산업 일제히 '부진' 반도체, 상반기보다 감소폭 개선...저점 지났다

올해 하반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주요 산업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대부분의 수출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12.8% 감소하며 수출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며 1년 전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같은 동기 3.2% 줄어든 것보다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13대 주력 산업을 살펴보면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지(9.2%)를 제외한 대다

수 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경우 하반기 수출액이 12.8%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최근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설비 교체 등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영향을 미쳐 상반기(35.1%)보다는 감소 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단가가 상승했음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며, 전년동기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기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다소 약화되면서 수요가 개선되고 누적된 재고 해소, 신제품 출시 및 기저효과가 작

용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반기(-38.3%)보다 감소세가 완화되는 셈이다.

최근 자동차 수출은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누적된 이연 수요가 실현되고 있으며, 고급리·경기불안으로 신규 수요가 줄면서 1년 전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예상했다.

정유의 경우 엔데믹에 따라 이동 수요가 늘어나며 항공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확대하고, 비(非)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풀이했다. 다만 전년도 수출 물량 확대의 기저효과와 수출단가·정제마진이 일제히 감소하며 수출물량(-1.0%)과 수출액(-22.5%)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차전지, 조선 등은 몇몇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차전지는 대미 수출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반기(10.7%)보다 소폭 축소된 9.2% 증가



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 수출은 상반기(19.7%)에는 생산 지연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하반기에는 인력 충원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8%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와 같이 남미 조정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계는 대미·대유럽 수출은 하반기에

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보다 0.3% 소폭 감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철강은 중국의 감산에 따른 반사이익의 영향을 받고, 유럽연합(EU) 제2차 생산 회복세로 수출물량(3.4%)과 수출액(3.8%) 동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용일 기자

배일뱃는 광주 하이엔드 주거명작 GS건설 '상무센트럴자이'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14개 동 903세대 규모 호텔급 커뮤니티, 전세대 독일 프리미엄 가구·가전 제공 운천역, 5·18기념공원 등 역세권, 녹색권 여건 갖춰 6월5일 특별공급, 7월 1순위...청약자 경품 행사도



올 상반기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이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무센트럴자이'가 드디어 배일을 뱃는다.

GS건설은 26일 상무센트럴자이 주택전시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는 압도적 입지와 최고급 사양에 품격높은 호텔급 커뮤니티까지 더해져 광주를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6월5일(월) 특별공급, 7일(수) 1순위, 8일(목)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14일(수)이며 정당계약은 6월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청약 규제가 한층 완화되었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된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 및 다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졌다. 청약 제당첨 제한도 없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전 평형이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주광역시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4㎡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4㎡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여기에 청약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상무센트럴자이 청약 접수 후 인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벤츠 e클래스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에 전세대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 기본 제공

상무센트럴자이는 서울 강남 하이엔드 아파트에 적용된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 서비스가 도입된다.

먼저 자이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을 살펴보자.

단지 지상 30층(108동)에 위치한 자이의 시그니처 스카이라운지 CLUB CLOUD(클럽 클라우드)에서 입주민들은 광주시가지와 무등산의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광주 최초로 입주민 전용 영화관 CGV SALON이 마련돼 여가생활을 돕는다. CGV SALON은 리플라이닝 좌석과 최신 시설이 갖춰진 프리미엄 상영관으로 입주민들은 '자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영화를 예매할 수 있다.

신라호텔 등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이탈리아 운동기구 테크노집이 구비된 피트니스센터, 호텔시설 못지않은 사우나, 2개의 스크린 골프 시설과 전 타석 GDR로 즐기는 실내골프 연습장 등은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 줄 전망이다.

단지 내에 들어서는 '작은 도서관'은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분야별 업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며, SPC그룹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자이만의 스페셜 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게스트하우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쉬어갈 수 있도록 투룸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세가지 타입으로 마련돼 파티룸, 레지던스룸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세대 내부 차별화도 눈길을 끈다.

903세대 전체에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가 기본 제공된다. 전 세계적 인지도와 높은 평판을 자랑하는 독일 명품 주방가구 '지메틱(Sie Matic)'과 1928년 설립된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 '라이히트(LEIGHT)', 유럽 주방가구 시장 점유율 1위의 독일 브랜드 '노블리아'가 각 타입별로 구분, 적용된다.

독일 글로벌 가전브랜드 '미레(Miele)'의 인덕션, 식기세척기 역시 기본 제공되며 영화 '기생충'에 나와 눈길을 끌었던 이탈리아 명품후드 '팔메(falme)', 이탈리아의 싱크볼 브랜드 포스터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 교통·행정·금융·상업·문화의 중심지... 광주 최고 수준 인프라 갖춰

상무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상무지구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교통·행정·금융·상업·문화 중심지다.

단지 전면에 있는 상무대로는 광주 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동림IC, 서창IC와 연결이 쉬워 광주 내부순환도로 이용과,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출입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상무역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2호선 환승역으로, 더블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 광주 전역으로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 등의 접근성이 좋아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광주의 행정, 금융 1번지답게 광주광역시청 등 공공기관,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고 롯데마트 맥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가까이 쇼핑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서광초, 상일중, 상일여고, 상무고 등 학교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교육 환경도 좋다. 상무센트럴자이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쾌적한 녹지 환경이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5·18 기념공원은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 사할 무각사와 연결돼 휴식과 함께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또 광주의 벚꽃 명소 운천호수공원과 울해 말 완공 예정인 운천근린공원, 단지 옆 무지개 어린이공원까지, 그야말로 녹색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대급' '압도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유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 브랜드 모두 갖춘 프리미엄 단지로 분양 전부터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광주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선도할 리더 아파트로 입주민의 자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2-85, 86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이다.

서선욱 기자

이디야커피, '코코넛밀크 플러스' 2종 판매



이디야커피가 '코코넛밀크 플러스' 2종을 판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3월 도입한 오토 옵션에 이어 대체유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이번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코코넛밀크 플러스 2종은 태국 현지에서 제조한 코코넛 밀크를 한국인의 대중적인 입맛에 맞춰 개선하여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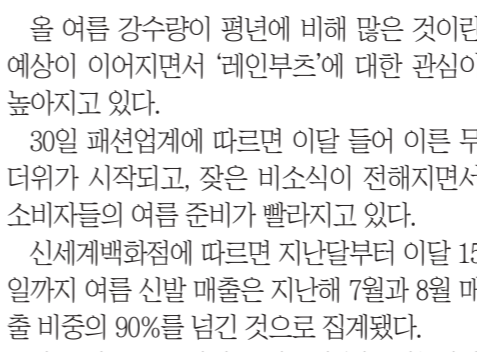
코코넛밀크 플러스 오리지널은 코코넛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한 맛에 코코넛밀크의 부드러운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으며, 탱글탱글한 나타드코코(코코넛 젤리)의 재미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코코넛밀크 플러스 망고향은 코코넛 밀크 플러스에 망고향을 더해 더욱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가치소비와 ESG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대체유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코코넛밀크 플러스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달달하고 고소한맛에 나타드코코 함유로 식사 대용 음료를 찾는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역대급 장마 소식에 '레인부츠' 인기 ↑



올 여름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은 것이란 예상이 이어지면서 '레인부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패션업계 따르면 이달 들어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잦은 비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여름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여름 신발 매출은 지난해 7월과 8월 매출 비중의 9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컴포트 슬리퍼 브랜드인 '핏플립', 레인부츠로 유명한 '헌터', 독일 샌들 브랜드 '버켄스탁' 등 여름 신발의 매출은 전년 대비 65.8%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에 폭우가 내리는 등 비소식이 잦아들었다. 기상청이 오는 7월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레인부츠' 등 장마 패션 아이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23일 LF 내 '레인부츠'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대비 26배, 전월 대비 6배 급증했다. 인기 검색어 상위에도 꾸준히 '레인부츠', '핏플립' 등의 여름 슈즈 연관 키워드가 랭크돼 있다.

W컨셉에서도 이날 오후 기준 인기 검색어 1위에 '레인부츠'가 랭크돼 있다. W컨셉은 이같은 레인부츠 인기로 '써머슈즈 포 레이니 데이즈'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벤시몽, 베뉴먼트 등 일부 브랜드 상품은 품절되는 등 인기를 보였다.

W컨셉은 다음달 5일부터 장마 관련 기획전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관심은 판매로도 이어지고 있다. LF가 수입·판매하는 '핏플립'의 레인부츠는 올해부터 봄여름(SS) 시즌 전개를 시작하자마자 고객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고, '바버(Barbour)'가 이번 시즌 새롭게 국내 전개하기



시작한 레인부츠 역시 4월 대비 이달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캐주얼 패션이 일상화되고, 레인부츠의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한여름에 주로 신었던 아이템이 시즌에 관계없이 일상복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핏플립의 대표 레인부츠 '윈터월리'는 발목 라인까지 떨어지는 '젤시'와 중간 기장감의 '숏', 나막신 모양의 '클로그' 3종으로 판매 중이며 컬러 또한 다채로운 평상시에도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 있다.

바버의 레인부츠 역시 룩, 미들 기장 2종으로 이뤄진 '웰링턴 부츠', 젤시 디자인의 '월튼 부츠' 등으로 다양하다. 레인부츠가 갑갑한 이들이 레인부츠 대신 가볍게 신을 수 있는 EVA(에틸렌초산비닐) 고무 소재의 '러버(Rubber) 슈즈'도 인기가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어진다는 소식이 고객들이 미리부터 장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운 장마 시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신발이 유용한데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레인부츠 제품들이 골고루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